

한국 도시의 지역공동체 형성과 확산 가능성 탐색

수원 칠보산 공동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양영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학예술학부 교수, 문화인류학 전공
ykyang@aks.ac.kr

I. 머리말

II. 선행연구 검토

III. 칠보산 공동체의 성립과 성격

IV. 칠보산 공동체의 확산 가능성

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다. 1960년에 39.1%에 불과하던 도시화율이 1970년에는 50.1%, 1980년에는 68.7%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고, 2005년에는 90.1%에 이르렀으며 최근까지 큰 변화는 없다.¹⁾ 이러한 지표로 알 수 있는 것은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급속하게 발생했다는 것이고, 이는 농촌지역의 공동체들이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것과 동시에 도시지역에서는 공동체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함축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했다.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집중이 급속히 이루어져서 지역에 대한 연구가 없는 사람들이 상호 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모여 살게 되었다. 도시로 이주한 이후 도시 내에서의 이주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향은 아파트 거주가 도시 내 지배적 거주유형이 되면서 더 두드러졌다. 따라서 한국의 도시에서는 지역성(territory), 사회적 상호 작용(social interaction), 공동의 결속(common ties) 등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기본요소로 지목되는 특성을 잘 찾아볼 수 없다.²⁾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지배적 주택유형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것은 편리성·익명성·독립성 등을 도시민들이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³⁾ 그러나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주민들은 주거, 교육, 보건의료, 교통,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고립되다시피 살아가면서 느끼는 소외감 역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도시민들은 공동체 구축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외감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

1) 여기서 도시화율은 전 인구 중에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이르는 것이다. 크게 두 가지, 용도지역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즉, 용도상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계산하는 것과 행정구역으로 읍급 이상의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위의 비율은 용도지역 기준의 도시지역 인구 비율이다(e-나라지표).

2) Hillery, G.,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Vol. 20(1955), pp. 779-791. 신명호 외(2000)에서 재인용.

3)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수도권외의 주택유형은 아파트(58.3%)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71.0%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양상이 바로 마을만들기로 통칭되는 다양한 움직임이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마을만들기는 지역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전개되다가, 2000년 들어서는 기초지자체가 주도하는 정책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도시 재개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⁴⁾ 마을만들기에는 마을 내 주민들의 관계 긴밀화를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과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것, 마을의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 경제적 자립성 함양을 포함하여 마을 운영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⁵⁾ 마을만들기는 사업추진 주체에 따라서 주민주도형, 시민단체주도형, 행정주도형으로 나누어볼 수도 있다.⁶⁾ 국토교통부나 안전행정부 등의 중앙행정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주민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단체장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 사이의 긴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상기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과 지속을 위해 핵심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 많은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필자는 수원 칠보산 공동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대표적 도시인 수원에서 지역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확산되어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며 그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보려고 한다.

칠보산 공동체는 육아와 교육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이다. 즉,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방과후, 그리고 대안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교육 혹은 육아 단체의 운영을 위해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다양한 다른 활동을 이끌어내어 삶의 여러 영역에 걸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동육아가 중심이 되어 활발하게 활동하는 도시 내 지역공동체의 가장 대표적 사례는 성미산마을일

4) 김세용·최봉문·김현수·이재준·조영태·김은희·최석환, 「우리나라 마을만들기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 『도시정보』 371권(2013), 3-20쪽.

5)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주)이락,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국토연구원, 2013).

6) 이영창·김근호, 「지역 어메니티 촉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운영사례 비교연구」, 『농촌계획』 19권 2호(2013), 129-138쪽.

것이다. 성미산마을은 활동 영역이 매우 넓고 주민들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적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성미산마을과의 비교를 통해서 칠보산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시도를 할 예정이다.

필자는 2012년 가을에 금호동 일대에 있는 칠보산도토리교실, 칠보산 자유학교, 엘지빌리지 단지 등을 돌아보고, 칠보산 공동체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한국 도시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의 사례지역으로 수원 칠보산 공동체를 선택한 이후 2013년 2월부터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칠보산마을신문과 칠보문화놀이터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D씨를 가장 먼저 면담한 이후 틈틈이 금호동 지역을 방문하여 칠보산 공동체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들과 심층 면담을 수행했으며, 10월 초에는 칠보산 공동체의 교육과 육아 단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95부의 설문지를 배부해서 53부를 회수했다. 이 설문조사는 엄격한 통계적 기법에 의한 샘플링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수 인원과의 심층 면담 자료를 보완할 목적으로 성원들의 대체적 의견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이 외에 칠보산 공동체에 대한 신문 기사와 리포트, 통계자료 등을 참고했다. 칠보산과의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성미산마을은 워낙 유명해서 관련 자료가 매우 풍부했는데, 성미산마을에 대한 저서와 논문을 주로 참고하였고, 성미산마을을 답사하기도 했다.

II.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도시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연구이지만, 큰 틀에서 도시공동체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대 도시, 특히 한국의 도시에서 자연발생적 공동체성을 발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동체적 관계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운동, 즉 도시공동체 운동을 통한 공동체성 증진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동체 운동의 이론적 측면에 대한 논의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⁷⁾

7) 김동수, 「현대공동체주의의 사상적 기초: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6권 3호(1993), 3007-3021쪽; 김동수, 「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을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28권 1호(1995), 275-296쪽; 최병두, 「공동체 이론의 전개과정과 도시공동체운동」, 『도시연구』 6호(2000), 32-50쪽.

최병두는 고전적 공동체 이론과 현대 공동체 이론을 살펴본 다음,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공동체 이론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공동체운동이 고립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개별 공동체의 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조건에 대한 고려와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체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공동체운동은 전 사회적인 가치관 변화를 통한 변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동체운동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구자인이 공동체운동의 갈래를 나누어 그 문제점과 당면과제를 살펴본 다음, 다양한 공동체운동이 네트워크로 연대를 이루는 것이 지속 가능하고 확산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 내용이 한국사회의 공동체운동을 이해하는 데 적실성이 있다.⁸⁾ 또한 신명호가 지적한 바, 도시공동체운동이 의도적 실험에 의한 공동체 창출일망정, 일상적인 삶 속에서 참여자들의 인간관계가 공생의 사회적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과 사회적 관계의 범위를 확장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 두 가지 모두 중요하며, 전자가 전제되어야만 후자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데, 운동이라는 성격 때문에 후자가 강조되는 우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성미산마을에서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내에서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다가 생협, 성미산 지키기, 마을축제, 동아리 활동, 성미산학교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전개되면서 마을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긴밀해지고 공생의 사회적 관계로 진전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결합되어 지역에서 진정한 마을로 태어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⁹⁾ 성미산마을은 또한 생태적 도시공동체의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¹⁰⁾ 이 연구의 대상인 칠보산 공동체 성미산마을의 이런 특성들을 일정 정도 공유하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도시의 지역공동체의 실상을 분석하고 과제를

8) 구자인, 「공동체운동의 조류와 시사점」, 『도시서민의 삶과 주민운동』(도서출판 발언, 1996), 222-241쪽.

9) 이경란, 「공동육아 섬에서 마을주민으로」, 『함께 크는 삶의 시각 공동육아』(또하나의 문화, 2006), 168-187쪽.

10) 이근행, 「생태적 도시공동체운동의 가능성과 전망」, 『도시연구』 7호(2001), 96-116쪽.

제시한 많은 연구가 있다. 관주도의 마을만들기로 통칭되는 활동들이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마을만들기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논의를 발견할 수 있지만¹¹⁾, 이 연구의 관심은 관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례이기에 그런 성격의 선행연구들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행정동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와의 관계하에서 지역 내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조사, 평가 및 제언을 담은 연구들이 있다.¹²⁾ 시민단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공동체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례로서는 대표적으로 삼덕동공동체가 있다.¹³⁾ 이 공동체는 대구YMCA가 주축이 되어 담장허물기, 벽화꾸미기, 마을축제 등 사업을 10년 이상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이 자생적 조직을 낳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성 증진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도 많다. 예컨대,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 활발한 상호 작용이 발생하고 그 결과 ‘두레’가 결성되고 커뮤니티 활동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하여 정주의식과 공통의 유대가 상당히 긴밀하게 형성된 광명시 하안동의 사례가 있다.¹⁴⁾ 화장장 반대운동과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운동을 통해 주체적 활동의 힘을 실감한 주민들이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지역신문 발간, 벽화그리기,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높여가다가

11) 예를 들면 김기호 외, 『우리, 마을만들기』(나무도시, 2012).

12) 예를 들면 안성수·하종근,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분석과 바람직한 운영방안: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19권 1호(2006), 3-30쪽; 박현근, 「지역사회 주민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 참여의 영향요인과 사회 심리적 효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권 1호(2007), 145-170쪽; 이혜경,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 인천 가좌2동 어린이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13) 삼덕동 마을만들기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김경민, 「한국YMCA 지역커뮤니티 운동의 방향과 대안: 삼덕동 마을만들기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YMCA 간사자격 논문(2008); 윤옥경, 「도시지역 마을만들기의 사례와 시사점: 대구 삼덕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권 5호(2008), 466-479쪽; 김은희·김경민, 『그들이 허문 것이 담장뿐이었을까』(한울, 2010).

14) 김기현, 「주민자치의 기반으로서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연구: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활동의 지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을 구의원에 당선시키는 성과를 올린 반송의 사례도 있다.¹⁵⁾ 또한 작은 도서관을 통해 주민들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동체성을 높여가는 사례도 있다.¹⁶⁾ 그리고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시초로 생협 창립과 성미산 지키기 투쟁을 거치며 다양한 마을기업의 창립, 마을극장 개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시 내 지역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주는 성미산의 사례도 있다.¹⁷⁾

성미산마을과 유사하게 칠보산 공동체의 중심에는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대안학교가 존재한다. 그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핵심을 형성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 구축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육아와 관련된 연구들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대안학교는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루기는 매우 어렵지만,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각각의 특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특징도 많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방과후와 대안학교도 일정 정도 공유한다.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협동조합 방식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그동안 학계로부터도 상당한 관심을 끌어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검색 서비스에서 공동육아를 주제로 해서 검색을 하니 학위논문 185편, 국내학술지논문 95편이 떴다. 그런데 그중에 정작 공동육아와 관련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은 각각 약 50편씩이 있었다. 단행본도 여러 권 있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운영은 조합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은 조합원 회의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민주적

15) 최숙자, 「도시공동체와 지역주민운동에 관한 연구: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고창권, 『반송사람들』(산지니, 2005).

16) 이혜경, 앞의 논문; 김소희, 「작은도서관운동의 마을만들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양영균,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과 작은 도서관, 용인시의 사례」, 『정신문화연구』 35권 2호(2012), 35-67쪽.

17) 이주영, 「참여자의 경험세계를 통해 본 지역시민운동: 마포구 '성미산 살리기 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이은희, 「후기 근대 지역공동체의 성찰적 동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 유창복, 「도시 속 마을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 성미산 사람들의 '마을하기」,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유창복, 『우리 마을에서 논다』(또하나의문화, 2010); 김정옥,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형성과정에서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성미산마을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윤태근, 『성미산마을 사람들』(문학동네, 2011); 정성훈, 「현대 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의」, 『철학사상』 41호(2011), 347-377쪽; 한상훈, 「성미산 마을 연구: 도시에서의 새로운 대안적 삶에 대한 모색」,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1).

의사결정과정은 경험하며 조합원들이 자주 접촉하게 된다. 그리고 어린 이집의 경우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터전 청소와 나들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원들 사이에 인간관계가 긴밀해지고 명실상부하게 공동으로 아이를 키우게 된다. 또한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생명, 평등, 공동체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이러한 가치를 습득할 것이 요구된다.¹⁸⁾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이나 방과후를 하나의 공동체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개 동의하고 있다.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 시스템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고유의 문화를 공유하는 독자적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성원들이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들의 공동체성을 확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 조합 밖 이웃과의 공동체성 형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¹⁹⁾, 이웃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공동체성 확산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²⁰⁾ 이 연구에서는 칠보산 공동체 내의 성원들이 지역 내 이웃과 어떻게 교류하고 자신들의 공동체성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18)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임우연, 「공동육아협동조합의 부모참여 과정에 관한 연구: 신촌, 청주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5); 이창호, 「공동육아협동조합 조합원의 참여과정과 집단정체성의 형성: 한 조합형 어린이집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8); 이부미, 「공동육아 문화의 교육적 해석」, 『유아교육학논집』 제4권 제1호(2000), 131-150쪽; 정병호, 「한국사회의 공동체 교육현장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풀무학교와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민족과 문화』 9집(2000), 407-432쪽; 류경희·심순옥, 「공동육아협동조합 가족의 공동체성 형성과정: 조합형 어린이집 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대한가정학회지』 39권 3호(2001a), 107-133쪽; 류경희·심순옥,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의 참여를 통한 이웃과 가족 관계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39권 11호(2001b), 193-208쪽; 류경희, 『공동육아, 이웃이 있는 가족 이야기』(또하나의문화, 2004); 장원섭 외, 「성인의 함께 배우기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공동육아에 참여한 부모들의 공동체적 학습과정을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13 No. 2(2010), 1-29쪽.

19) 류경희·심순옥, 위의 논문(2001b), 207쪽.

20) 대표적인 것이 성미산마을로서 이경란, 앞의 논문에 잘 나타나 있다.

III. 칠보산 공동체의 성립과 성격

이 연구의 대상인 칠보산 공동체가 속한 지역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겠다. 수원시는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한 도청소재지로서 2013년 9월 30일 기준으로 43만 7,225세대에 114만 1,456명이 거주한다. 동쪽으로는 용인시, 서쪽으로는 안산시, 남쪽으로는 화성시, 북쪽으로는 의왕시와 접하고 있으며, 서울 근교의 최대 도시이다. 4개 구와 39개 행정동, 그리고 56개 법정동이 있는데, 본 연구 무대는 권선구에 속해 있으며, 행정동으로는 금호동, 법정동으로는 금곡동과 호매실동이다. 권선구는 수원시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답이 많은 지역으로서 수원시 전체 면적에서 전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인 데 비해서 권선구는 그 비율이 37%에 이른다. 인구밀도 역시 낮은 편인데, 수원시 전체는 9,432명/km²인 데 비해 권선구는 7,012명/km²이다. 금호동의 경우 인구는 약 5만 3,000명이고 면적은 약 8.84km²로서 인구밀도는 5,996명에 불과하며, 특히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 지역인 엘지빌리지는 칠보산 기슭에 전답 가운데 외따로 떨어진 아파트 단지이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칠보산 공동체의 성격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칠보산 공동체는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칠보산 자락의 금호동 지역에 자리한 교육과 육아를 위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이른다. 이 공동체에 속한 단체는 사이좋은어린이집(서수원 공동육아협동조합), 칠보산어린이집(칠보산 공동육아협동조합), 사이좋은방과후(서수원 교육문화공동체), 칠보산자유학교, 칠보산 청소년교육문화나눔터 둠벙, 칠보산 청소년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칠보산도토리교실, 칠보산마을신문, 꿈꾸는 자전거, 칠보문화놀이터, 한살림, 칠보농약전수회를 비롯한 각종 동아리, 만들레 읽기 모임 등 각종 독서 모임 등이다. 이 단체들을 성격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교육 및 육아 단체가 있다. 칠보산 공동체의 성립과 발전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교육 및 육아 단체들이고, 그중에서도 어린이집, 방과후, 그리고 자유학교이다.

칠보산 공동체 형성의 시작은 2001년 '사이좋은어린이집'의 개원이었다.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마땅치 않았던 몇몇 주부가 마포나 과천에서 운영하고 있던 공동육아의 이야기를 듣고, 공동

육아연구원(현재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 출입하면서 정보를 수집했다. 현직 교사였던 B씨를 중심으로 몇 명의 교사가 이 주부들과 뜻을 모으면서 공동육아를 시작하게 되었다. 2000년 12월 28일에 제1차 이사회를 열었고, 이듬해 3월에 개원을 했다. 처음에는 11-12가구가 모임을 시작했는데, 거의 매주 회의를 했다. 모든 문제를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해결해야 하는 공동육아의 특성상 조합의 결성에서부터 출자금 문제, 선생님을 모시는 문제, 교육의 방향 문제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몇 집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고 한다. 금곡동에 위치한 엘지빌리지 거주자가 중심이 되었지만, 조합원을 모집하자 수원 영통이나 안산, 인근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어렵게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는데, 1년이 지나자 어린이집을 졸업한 아이들이 일반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방과후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이좋은방과후'인데, 이 역시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처음에는 조합원 중 한 사람의 집에서 시작하여, 노인정 공간을 빌려 운영하다가 나중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졸업한 아이들에게는 세 가지 진로가 있었다. 첫째는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공동육아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둘째는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동육아 방과후를 다니는 것이다. 셋째는 다른 지역에 있는 대안초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진로를 택했던 사람들의 일부가 칠보산 지역에 대안초등학교를 만드는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을 떠나고 싶지는 않지만 일반초등학교의 교육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이좋은어린이집과 사이좋은 방과후를 시작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B씨가 중심이 되어 2004년에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2005년에 대안초등학교인 '칠보산자유학교'를 개교했다. 어린이집은 열댓 가구로 구성되고 길어도 3-4년간 몸담게 된다. 공동육아라는 독특한 운영방식에 의해 조합원들 사이에 집중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공동체적 집단이 형성되는데, 그 규모와 공동체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기간이 그 정도가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대안학교는 한 학년에 10명 정도씩 총 60가구가 6년간 조합에 몸담게 된다. 따라서 훨씬 큰 규모의 단단한 공동체가 대안학교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칠보산어린이집'은 2012년 개원했다. 사이좋은어린이집 학부모들 사

이에 그리고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 생긴 갈등을 극복하기가 힘들어지자 일부 학부모와 교사가 따로 나와서 칠보산어린이집을 설립했다. 사이좋은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오랫동안 일하고 있었고, 조합 이사회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너무 정체되어 있고 조합원들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협동조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일군의 조합원이 등장했다. 이들과 기존의 문화를 존중하려는 조합원과 교사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결국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당시 터전이 화성으로 옮겨가 있었는데, 일부 조합원과 교사가 다시 엘지빌리지로 돌아와서 칠보산 어린이집을 설립하게 되었고, 뒤이어 사이좋은어린이집도 엘지빌리지로 돌아오게 되었다.

교육 단체이긴 하지만, 상기한 단체들과는 성격이 다른 단체로 둠벙과 청소년 방과후를 들 수 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일반초등학교로 진학하여 공동육아 방과후와 병행하다가 그것마저 졸업하여 이제 어느 조합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부모들 중 일부가 공동육아의 취지와 문화를 계속 유지하고자 소위 명예조합원으로 남게 되었다. 이들이 2009년에 엘지빌리지 내 청소년들의 문화 및 교육활동을 하는 모임을 만든 것이 '뚝방'이다. 이들은 꾸준히 자금을 모으고 단지 내 버려진 반지하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기타와 사진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탁구·바둑·컴퓨터프로그래밍·수학 등을 가르치고 독서토론·영화모임 등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이 마련한 공간을 개방하여 다양한 공동체 성원이 이용하게 되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단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뚝방이 엘지빌리지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민 자치적 성격이 강한 모임이라면, '칠보산 청소년 방과후 지역아동센터'는 2010년 낙후된 호매실동에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학교로 만들어졌다. 전 민노당시의원과 칠보산자유학교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여러 단체의 후원에 힘입어 문을 열었고, 지금도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뚝방이 칠보산 공동체의 전 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공간 역시 주로 공동체 성원들이 활용한다면, 지역아동센터는 공동체의 지원이 개교와 운영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주민이 관여하고 그 대상도 저소득층 청소년인 점이 뚝뚝과 다르다.

둘째, 파생적 단체들이 있다. 이 단체들은 교육 및 육아 단체의 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는 것과 지역주민의 포괄이 단체의 주요 목표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또한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마을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칠보산마을신문은 2010년에 시작했다. 칠보산자유학교 엄마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하자모임'에서 한살림 공모전에 응모하여 당선된 것을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다. 목적은 칠보산 공동체에 속하는 6-7개의 단체가 각자 활동에만 매몰되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단체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공동체와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수원시에서 하는 마을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다가 지금은 CMS 후원과 비정기적 후원에 의존하여 신문을 내고 있다. 창간 준비호를 5회 발행한 다음 2012년 3월 1일에 창간호를 발행했다. 당시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기자 9명, 어른 기자 11명이었으나 2013년 2월 현재 편집위원 3명, 기자 3명이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공동체 성원들 중심으로 제작, 배포하였는데, 지금은 일반주민들의 참여도 많고, 신문을 읽고 난 후의 감상이나 제안, 제보를 해주는 주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칠보산 자유학교 이름으로 수원 마을르네상스 사업 공모에서 당선되어 마을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법과 정비하는 법 등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주민동아리로 발전한 것이 '꿈꾸는 자전거'이다. 매달 같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면서 자전거 타기에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동아리 성원은 12명 정도인데, 그중 반 정도가 공동체 성원이다. 자전거 타기 행사에는 아이들도 합류해서 2013년 3월에는 18명이 모여서 같이 자전거를 탔다.

'칠보문화놀이터'는 2012년 마을르네상스 공모에 당선되어 2,000만 원을 받고, 주민들의 후원금과 펀드를 모으고 빚도 좀 지면서 3,500만 원 정도 들여 호매실동에 건물 지하를 빌려서 리모델링을 했다. 대규모 홈플러스의 개장과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해 쇠락해가는 호매실동에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문화활동을 통해 구시가지 활성화에 대안이 될 수 있는 희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다. 처음 공간을 마련할 때는 공동체 성원들이 주로 참여했으나, 지금은 일반주민들이 많이 참여

하고 있다. 미술 작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림을 그리고, 기타교실, 손바느질과 손뜨개를 배우는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강좌가 끝난 이후에 동아리로 전환해서 모임을 이어갈 것 같다. 그 외에 모임 공간이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이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셋째, 환경 관련 단체들이 있다. 여기에 속하는 단체로는 생협인 한살림의 지부와 칠보산도토리교실이 있다. 전자는 먹을거리를 활동의 중심으로 삼고 있지만, 환경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다루고, 먹을거리 이외에도 자연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토리교실은 환경이 활동의 중심이 된다.

‘칠보산도토리교실’은 2003년에 만들어졌다. 칠보산을 중심으로 자연을 배우고, 자연에서 얻은 나무나 풀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며,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오염을 막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몇 명의 교사가 공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을 활용해서 목공 체험, 염색 체험, 흙 놀이 체험을 진행하며 도토리교실은 발전해갔다.²¹⁾ 아이들을 위한 생태 교육과 함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는 두꺼비 논, 시민농장(생태텃밭), 녹색장터 등이 있다. 두꺼비 논은 한 구좌당 5만 원씩 펀드를 모집하여 논을 빌려서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데, 도토리교실 운영진 중 한 사람인 R씨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2013년에는 1,300평 정도의 논을 빌렸고 140구좌에 700만 원을 모집했다. 칠보산자유학교, 칠보산어린이집, 사이좋은어린이집, 사이좋은방과후, 칠보산 청소년 방과후(뚝뚝), 한살림 수원지부, 아이쿱 수원생협, 수원환경운동센터, 꿈꾸는 자전거 등이 단체로 구좌를 구입했고, 이 외에 많은 사람이 개인 차원에서 참여했다. 모내기, 김매기, 벼베기 행사를 진행하는데, 모내기나 벼베기

21) 7세부터 초·중·고등생과 일반인까지 포괄하는 칠보산도토리교실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칠보산 생태 체험: 숲 체험, 야생화·곤충·조류 관찰
- 두꺼비 논 체험: 즐거운 논학교, 논걷기, 논생물 조사, 김내기, 논백일장
- 자연물로 만들기: 솥대, 나무곤충, 나무피리·연필, 나무액자, 종이인형 만들기
- 천연염색 체험: 황토·감잎·쪽·양파·소목·밤껍질 등으로 천연염색하기
- 문화예술 체험: 관화, 도예 체험, 흙 놀이·흙 명상·흙 피리 체험
- 자연물 목공 교실: 책상·의자 만들기, 새집·대나무활·딱따구리 소리통 만들기
- 도움반 수업
-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1만 원씩 회비를 내는 참나무 회원을 위한 프로그램, 초·중등생을 위한 숲속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출처: 칠보산도토리교실 소개 브로셔).

때는 200여 명이 모인다. 추수한 쌀로 떡을 만들어 떡잔치도 한다. 시민농장은 2012년에 도토리교실 운영진의 일원인 J씨가 땅을 빌려서 텃밭을 분양하여 발농사를 짓고, 자연목공 강좌, 공동체의 대보름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텃밭은 1,000평 정도인데, 한살림, 아이쿱, 미래생협, 한방차 모임 등의 단체와 개인들이 재배한다. 친환경농법을 써야 하는 것이 규칙이다.

‘한살림’에는 지역마다 햇살모임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금호동 지역에서는 이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H씨가 2004년에 엘지빌리지로 이사를 온 후 조합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모임을 시작했다. 현재 수원지부에 속한 칠보산 지역에는 금호햇살모임과 칠보산달빛모임이 있다. 달빛모임은 낮에 시간을 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이다. 햇살모임에는 5-6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주로 칠보산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일반주민들이고, 달빛모임은 자유학교 엄마들이 주축으로 10명 정도가 참여한다. 먹을거리와 환경 문제와 관련된 토론회도 하고 면으로 수세미나 생리대를 만드는 등의 활동도 한다. 그리고 엘지빌리지에서 봄에 두 번, 가을에 두 번, 합해서 1년에 네 번 초록장터를 운영한다. 아이들이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여, 물건 재활용 기회를 가지고, 경제관념도 배우고, 기부금을 받아서 이웃돕기도 하고 있다.

넷째, 취미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리 성격의 모임들이 있다.

‘칠보농약전수회’는 칠보산 인근의 풍물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지역 풍물패인데 예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정체되어 있다가 2009년부터 공동체 성원들이 합류하면서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일반주민이 더 많은 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벌어지는 정월 대보름 잔치, 한가위 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풍물을 하고 있다.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는 동아리들도 있다. 여성들의 독서모임과 남성들의 독서모임이 따로 운영되고 있고, 밴드, 전통주를 만드는 모임, 맥주를 만드는 모임, 아카펠라 동아리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공동체 성원들이 중심이 된다. 상기했듯이 칠보문화놀이터의 개관과 함께 일반주민 중심의 새로운 동아리들도 형성 중인 것으로 보인다.

2개의 어린이집과 방과후, 그리고 자유학교의 학부모들과 일반주민들

이 결합하는 형태의 단체가 여러 개 있다. 마을신문은 자유학교 엄마들이 처음으로 시작했고, 그중 한 사람이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공동체 성원과 일반주민을 아우르는 형태로 운영진이 구성되었으며, 활동 목표도 칠보산 공동체 내 단체들 간의 소통보다는 공동체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정과 정체성을 심어주는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꿈꾸는 자전기도 자유학교 학부모인 G씨가 수원시의 마을르네상스 사업에 당선되면서 시작되어 자유학교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지금은 동아리 형태로 전환되어 12명의 회원이 있는데, 그중 6명이 일반주민이다. 칠보문화놀이터는 마을신문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D씨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그 역시 자유학교 학부모이면서 공간 마련을 위해 공동체 성원들의 힘을 많이 빌렸으나 지금은 일반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에는 칠보문화놀이터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 공동체 성원이 10명 정도이고, 일반주민은 15-20명 정도이다. 한살림 모임의 경우, H씨가 금곡동의 햇살모임을 처음 시작했고, 그 이후 햇살지기의 역할은 그만두었지만 계속 핵심적 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H씨에 따르면, 한살림에서도 자유학교 엄마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모임이 이들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한살림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일반주민 성원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 이에 햇살모임과 달빛모임으로 분리하고, 햇살지기는 일반주민 성원이 맡는 등, 생협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일반 성원과 공동체 성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단체들은 교육 및 육아 단체를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칠보산 공동체 밖의 일반주민들을 끌어안으려는 비교적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활동의 배경에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비용 문제이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나 자유학교 같은 경우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²²⁾

22) 2013년 어린이집의 보육비는 월 60만 원 가까이 되고, 자유학교의 수업료는 월 40만 원을 넘는다. 자유학교는 수원시로부터 급식지원을 받는다지만, 장소 임대료, 교사 월급, 급식비, 기타 운영비 등 거의 모든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높은 비용은 불가피하다. 둘 이상의 자녀를 보낸다고 가정하면 교육 내지 육아 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

다른 하나는 공동체가 환경, 평화, 인권, 공동체성 등을 중시하는 교육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데 대해 좌파 내지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마을신문과 칠보문화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D씨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면서 단체를 시작하여 꾸려나가고 있으며, 꿈꾸는 자전거를 이끌고 있는 G씨는 공동체 성원들만 어울리는 양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 H씨 역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 성원들은 일반주민들과 소통함으로써 그런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동체적 가치관과 관계를 확산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공동체 내에서 오히려 소수인 것처럼 보인다. 공동체적 가치관과 관계의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성원들도 있고, 또 아예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성원들도 있는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겠다.

IV. 칠보산 공동체의 확산 가능성

1. 교육단체와 그 성원들의 특징²³⁾

칠보산 공동체는 2개의 어린이집과 방과후 그리고 자유학교로 이루어진 보육·교육 단체(이하 교육단체)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단체들은

의 대부분은 사교육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자유학교나 어린이집이 사교육을 금지하고 있어서 사교육비 부담은 극히 적다.

- 23) 공동체 성원들의 대체적 특징을 1장에서 언급했던 설문조사에서의 응답자 53명에 대한 자료를 통해 살펴보겠다. 연령은 30대와 40대이고, 학력은 대졸 이상이 92%,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00만 원 이상이 60%이고, 300만 원 이상이 80%였다. 응답자의 87%가 엘지빌리지에 거주했는데, 현 거주지로 이사 온 시기는 2009년 이후가 68%로서 대부분 오래되지 않았고, 전 거주지는 수원 이의 지역이 42%, 수원시 내에서도 권선구 이외 지역이 40%였다. 이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이주해 온 것을 의미하며, 이주 이유로는 교육 및 육아가 60%로 압도적으로 높고, 거주지 환경이 26%였다. 정리하면, 공동체 성원들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 30-40대로서 생활수준이 꽤 높은 사람들이 권선구 이외의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교육 및 육아를 위해서 또는 거주지 환경이 좋아서 엘지빌리지로 이주해 왔으며,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은 5년 이내이다.

조합형 공동육아 내지 대안교육이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그 특징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적 특성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출자금을 내서 터전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교사 월급을 비롯한 모든 운영비용을 자체적으로 공동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사 모임, 교육의 방향 설정, 교육 프로그램 결정, 터전 청소와 수리 등 단체 운영의 필요에 의해서 빈번한 회의와 뒤풀이를 통해 성원들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다른 하나는 문화적 특성이다. 이들은 아이 키우기 방식으로 대안교육을 선택함으로써 조합원들 간에 공동의 관심사를 갖게 되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바탕을 갖게 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공동육아만의 독특한 문화를 공유하면서 결속력 또는 공동체성을 강화하기도 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 사용을 들 수 있다. 공동육아 공동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는 터전, 아마, 나들이 들살이, 날적이, 마실 등이 있다.²⁴⁾ 둘째, 별명 부르기가 있다. 교사들이나 아마활동을 하는 부모들, 또는 자원봉사자들도 어린이집이나 방과후에서는 별명으로 불린다. 그 별명은 자신이 짓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지어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반말하기가 있다. 터전 안에서는 어른과 아이가 서로 반말을 한다. 서로 평등한 상태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²⁵⁾ 조합에 가입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면서 이런 고유한 문화를 습득하고 공유하며 단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동료 조합원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해간다. 그러나 외부인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부정적 영향도 있다.

2개의 어린이집과 방과후 그리고 칠보산자유학교는 각 단체 내에서는 성원들 간에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단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한국의 도시에서 아무런 연고자

24) 아마는 아빠와 엄마의 줄임말이고, 들살이는 하룻밤 이상을 집을 떠나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이르며, 날적이는 아이들의 하루 생활을 부모와 교사가 글로 적어 주고받는 수첩으로서 ‘노뚝돌’이라고도 부른다.

25) 이런 문화적 특징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며, 대안학교의 경우 학교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칠보산자유학교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문화적 특징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정도의 결속력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집단을 발견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물론 개인별 편차는 존재한다. 즉, 단체의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공식적 동아리 활동이나 뒤풀이 자리에 얼마나 열심인지에 따라서 소속감이나 다른 성원들과 맺는 인간관계의 폭과 깊이가 다를 것이다. 필자가 다른 연구(2012)에서 사용했던 거미줄의 비유를 적용한다면, 공동체 성원들의 연망의 중심부에는 지역 거주와 공동체 소속의 기간이 길고, 공동체의 여러 가지 활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온 사람들이 위치한다.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 특성상 공식적으로 중요한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중심부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간 부분에는 주도적 역할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위치하며, 연망의 외곽에는 교육 및 육아 단체에 속해 있긴 하지만, 활동에 소극적인 사람들이 위치한다. 사례를 통해 각 부분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자.

중심부에 속하는 인물로 C씨가 있다. C씨는 2004년도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칠보산자유학교 준비모임에 참여했다. 2005년에 엘지빌리지로 이사를 왔고, 큰 아이는 자유학교 2학년으로 시작하고, 둘째, 셋째 아이는 사이좋은어린이집을 거쳐서 자유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리고 막내는 사이좋은어린이집에 들어갔다가 칠보산어린이집이 분리되면서 같이 나와서 지금은 칠보산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2007년부터 자유학교 1학년 엄마들 중심으로 민들레 잡지를 읽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토론하는 모임(민들레모임)을 시작했다. 그 이후 학부모들이 대안교육과 학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임의 효용이 인정되어 현재 민들레모임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학부모들의 민들레모임 참가가 합격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C씨는 이 모임을 오랫동안 이끌어왔는데, 내년부터는 손을 놓으려고 한다. 칠보산어린이집이 분리되고 나서 C씨 주도로 공동육아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엄마들이 모여 매주 3개월간 했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다.

C씨는 자유학교 엄마들의 하자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했고, 따라서 마을신문 초기에 같이 했었다. 마을신문의 출발이 공동체 내 단체 간 의사소통을 위해서였는데, 같은 목적에서 단체 대표들의 모임인 원탁회의를 만들었는데, 그 모임을 맡아서 한 것이 C씨였다. 각 단체들 각각은

공동체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단체들 간의 소통과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다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모임은 약 1년 만에 잠정 중단되었다. 그 후 C씨가 대표가 되어 원탁회의 멤버 중 일부가 공동체의 비전을 만들기 위한 공부모임을 1년 동안 꾸렸지만, 이 역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끝이 났다. 이 외에도 C씨는 엄마들의 오키나모 모임에 참여했고, 자유학교 선생님, 학부모 몇 명과 같이 도시농부학교에 가서 농사를 배우기도 했다. 이처럼 C씨는 단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단체를 포괄하는 공동체 내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다.

연망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 적극적 참여자로 S씨를 들 수 있다. S씨는 자녀가 약간의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학교를 찾다가 자유학교에 입학시키게 되었다. 원래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경찰이라는 직업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있지만, 가능하면 학교 모임에는 나간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는 것 같다. 그리고 시설 분과에 속해 있는데 분과 모임은 주로 동네에서 많이 가지고, 사안이 있을 때는 자주 모인다. 예컨대 비가 많이 오기만 하면 학교에 물이 차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자주 모여서 회의도 하고 직접 터전에 가서 일도 했다. 맥주집 같은 데서 회의를 하면 안전에 관한 이야기 말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술자리가 길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학년별로 반 모임을 가지는데 S씨는 2학년 반장을 맡고 있다. 반 모임을 가지면 학교 전체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반장이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하고 전달하기도 하고, 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학교 전체에 전달하기도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빠 책모임에도 참석을 한다. 이런 모임들은 학교라는 틀 안에서 어느 정도 공식성을 띠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시간이 날 때면 빠짐없이 참석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학부모들과 술자리도 자주 갖는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러 수원 시내에 자주 나가서 술을 마시곤 했는데, 요즘에는 주로 동네에서 학부모들과 마시니까 수원에 나갈 일이 별로 없다. 게다가 술자리에서 어린이집이나 방과후, 칠보농약전수회 등 다른 단체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그러다 보니 공식적으로 접촉할 일이 거의 없는 공동체 성원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자유학교에 아이를 보내면서 하게 된 새로운 경험

중의 하나는 부부동반으로 또는 엄마들과 만나게 된 것이다. 회의석상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야간근무를 할 경우에는 낮에 동네에서 활동을 하면서 엄마들을 자주 만난다. 요즘에는 엄마들을 편하게 대하게 되었다. 자유학교에 아이를 보내면서 좋은 점 중 하나는 아이를 맡길 곳이 생겼다는 것이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이들을 봐야 할 때도 자주 있는데, 술을 마시거나 운동을 하러 나갈 일이 생기면 이웃에 사는 같은 학부모, 주로 엄마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마음 놓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떤 때는 아이 식사까지 부탁하기도 한다. S씨는 외향적인 성격인 데다가 가능하면 공식적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뿐더러 비공식적 자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로 이사 온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교의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단체 성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연망의 외곽에 위치한 소극적 참여자로서는 N씨가 있다. S씨의 자녀와 같은 학년인 딸을 둔 N씨는 큰딸을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5년간 보냈고, 발도르프 학교에 보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실패를 해서 지인의 소개로 자유학교를 알게 되어 아이를 보내게 되었다. S씨에 비해 소위 대안교육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유학교 내의 여러 가지 활동과 관계 맺음에 매우 소극적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모임에는 가능하면 남편을 보내지만 반 모임이나 학교 행사 같은 데에는 같이 가거나 남편이 일이 있으면 N씨 혼자 가기도 한다. 같은 반에 속한, 즉 같은 학년의 학부모들은 잦은 모임을 통해 잘 알고 있지만, 학교 전체를 통틀어 매우 가깝게 지내는 학부모는 아주 적은 편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공동육아 협동조합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매우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어려움이 대개 조합 내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유학교 내에서 다른 학부모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둘째 아이 때문이다. 자유학교에 입학하면 첫 일 년 동안 학부모들이 매달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민들레 독서모임이나 개인적 관심으로 어린이 도서연구회, 수원 아이쿱의 마을모임 등에 나갔었는데, 둘째 아이가 그런 모임에 가는 것을 싫어해서 올해는 모두 정리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곳을 위주로 다니다 보니 학교 관련 모임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것 같다. 일단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게 될 것이고, 그동안 관찰해본 결과 어린이집과 달리 자유학교는 교사들이 학교 운영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적은 데다가 학부모들의 숫자가 많고 능력 있는 성원이 많아서, 열심히 참여하면서도 앞장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학교 일이나 마을 일에 점차 많이 참여할 생각을 하고 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나 대안학교는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성원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이 집단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갖도록 한다. 하지만 성원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나 다른 성원들과의 관계의 밀도에는 위의 두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집단 내의 인간관계의 연망을 거미줄처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부에 그 조직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가장 넓고 촘촘한 관계망을 가진 일군의 사람들(C씨)이 위치한다면, 중간 부분에는 모임이나 활동에 비교적 열심히 참여하지만 선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고 또 다른 성원들과의 관계도 적당한 범위와 밀도를 가진 사람들(S씨)이 자리 잡고, 외곽에는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도가 낮고 다른 성원들과의 관계 맺기를 기피하는 사람들(N씨)이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2. 칠보산 공동체 내 교육단체와 다른 단체의 관계

칠보산 공동체는 교육단체들을 핵심으로 해서 다른 단체들이 연결되어서 형성되는데, 그 단체의 성격과 교육단체와의 관계의 성격을 몇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둠병, 마을신문, 꿈꾸는 자전거, 칠보문화놀이터 등은 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초기 활동에서는 교육단체의 성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참여하는 일반주민의 수가 점차 늘어났다. 각 단체를 시작하고 꾸리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주민들을 끌어들이려 노력한 것이고, 공동체의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D씨에 따르면 마을신문을 시작할 때 “우리들만의 리그를 벗어나서 지역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했”다고 한다. 또한 G씨는 “자전거 홍보할 때도 그게 저도 싫더라구요. 공동체 식구들만 노는 게…… 그게 좀 항상 고민인거죠”라고 했다. 이러한 단체들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편입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교육단체의 주요 가치인 생명, 환경, 공동체성 등을 어느 정도는 공유하게 됨으로써 공동체 성원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도토리교실과 한살림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살림은 생협으로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단위의 모임이 존재한다. 엘지빌리지에서 한살림 햇살모임이 한동안 중단되었었는데, 2004년에 이사 온 H씨가 햇살모임을 부활시켰다. 당시에 햇살모임에는 10여 명이 참석했는데, 교육단체와 연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주를 통해 햇살모임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같이 해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새로운 성원들이 잘 섞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들은 공식적인 햇살모임을 떠나서 소모임으로 남고 2기 햇살모임을 구성하게 되었다. 지금은 3기 햇살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유학교 급식을 한살림이 맡으면서 자유학교 학부모들의 참여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 햇살모임이 자유학교 위주로 돌아가면서 한살림 활동만 하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낮시간에 모임을 갖기 힘든 사람들도 있어서 달빛모임을 만들어서 자유학교 엄마들은 거의 달빛모임에 참석하고, 순수한 한살림 조합원들이 햇살모임을 꾸려가고 있다. H씨는 자유학교 학부모이지만, 교육단체보다는 한살림에 대한 소속감이 더 강하고, 그래서 교육단체 바깥의 조합원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토리교실은 워낙 독자적으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세 명의 운영진이 자연과 환경을 테마로 잘 이끌어가고 있다. 도토리교실은 내부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참여자도 매우 다양하다. 참여자는 교육단체를 비롯한 공동체 성원들, 지역주민이면서 공동체 성원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아예 서울 등 지역 외부의 사람들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두꺼비 논 구좌를 구매한 단체에 공동체의 단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공동체 성원들이 개인적으로 구매하기도 해서, 모내기과 벼베기 등 구좌 구입자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에서 절반 정도는 공동체 성원이 차지한다. 또한 시민농장에서 텃밭을 임대한 사람들 중 절반은 공동체 성원이다. 이 외에 도토리교실 프로그램에서도 공동체 성원들이 주요 참여자이다. 하지만 공동체 내의 다른 단체들과는

달리 교육단체 성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도토리교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교육단체 성원들을 비롯한 공동체 성원들과 일반주민들이 만나기는 하지만, 공동체와 일반주민들을 연결하여 공동체의 외연을 확장하는 장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다.

3. 성미산마을과 칠보산 공동체 비교

전술했듯이 칠보산 공동체와 성미산마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검토하여 칠보산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기늩해 보는 작업은 필요하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모태로 해서 활동 영역과 지역을 포괄하여 도시 내 공동체로 성장한 대표적 사례가 성미산마을이다. 성미산마을은 마포구의 성미산을 둘러싸고 있는 성산, 서교, 망원, 합정, 연남 등 5개 동을 포함하는데, 성산1동이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1994년 9월, 국내 최초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우리어린이집이 설립되어 성미산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²⁶⁾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1996년에는 날으는어린이집, 2002년에는 참나무어린이집이 개원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도 시작되었는데, 1996년에는 도토리방과후, 1999년에는 풀잎 새방과후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2004년에 12년제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가 개교를 했다. 공동육아 중심의 공동체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다가 2001년 마포두레생협²⁷⁾이 설립되어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본격적인 상호작용이 시작되었다. 성미산마을의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한 성미산 지키기 투쟁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이어졌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 건설을 위해 성미산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면서 그 산을 오랫동안 이용해온 주민들과 손을 잡게 되고, 언론을

26) 성미산마을의 각 단체들의 설립연도는 자료마다 약간씩 편차를 보이는데, 이는 한 단체의 설립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어 문을 열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확실히 설립되었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 작업이 단순하지는 않아서 한 사람이 쓴 2개의 글에서도 연도가 다르게 나타난다(예컨대, 유창복의 석사학위논문(2009)에서는 1995년에 날으는어린이집이 설립되었다고 나와 있으나, 그의 저서(2010)에는 1996년에 설립되었다고 나온다). 이 논문에서는 유창복의 저서 뒤에 정리되어 있는 연표를 따르기로 한다.

27) 마포두레생협은 4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으며, 2009년 7월 현재 약 3,500가구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통해 투쟁이 알려지면서 성미산마을은 이른바 유명세를 타게 되고, 공동육아를 비롯한 성미산마을의 활동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성미산마을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마을기업의 운영을 들 수 있다. 2001년에 생협 발족을 필두로 2003년에는 동네부엌과 성미산차병원이 개업했고²⁸⁾, 2004년에는 유기농 아이스크림가게인 그늘나무가 개점했다.²⁹⁾ 2007년에는 되살림 가게가 운영을 시작했고, 2008년에는 한뫼두레와 비누두레, 그리고 2010년에는 성미산밥상이 개점했다. 마을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어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뜻이 통하는 몇 사람이 동아리 형태로 활동을 시작하고, 그 활동이 규모 있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면 마을기업의 형태로 전환되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 대체적인 패턴이다. 시장과 국가가 해주지 않는 것을 마을 내의 협동관계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 바로 마을기업인 것이다.³⁰⁾

또한 성미산마을에는 다양한 동아리가 움직이고 있다. 사진·영상·밴드·연극·풍물·어린이 합창·발레·댄스·축구·야구·독서·공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발적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성미산마을극장은 이러한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부터 매년 성미산마을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마포FM을 개국해서 주민들의 참여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민들 간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두레, 의료생협 준비모임을 통해 복지 분야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성미산마을은 2007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프로젝트에 응모하여 당선되면서 프로젝트의 실행기관으로 시단법인 사람과 마을을 설립했다. 사람과 마을은 마을 내 다양한 활동의 현황과 과제를 살피고, 이들 간의 상호 연결을 지원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마을의 여러 사업과 활동을

28) 성미산차병원은 여러 가지 문제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던 끝에 2009년에 조합이 해산되었다.

29) 유기농 아이스크림 가게로 시작한 그늘나무는 원가 비중이 높은 반면 낮은 문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현실화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우여곡절 끝에 2008년에 작은나무라는 마을카페로 리뉴얼하여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30) 유창복, 앞의 책.

관장하는 교육·문화·환경·복지·경제 등 5개 사업분과, 그리고 연구와 총괄의 2개 지원분과가 있다. 해당 활동의 전문가들로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가동하여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고자 한다.

성미산마을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마을 사람의 세대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유창복은 성미산마을 사람들을 크게 3개의 세대로 나누고 있다. 1세대는 '마을설립자세대'로서 초창기 어린이집과 생협을 설립하고, 성미산 지키기 투쟁을 이끌어온 세대이다. 2세대는 1세대와 연령, 마을살이 연륜, 활동의 적극성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1세대의 바로 뒤를 이어서 혹은 1세대의 조력자로서 함께해온 세대이다. 3세대는 성미산마을이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에 이주해온 사람들로서 1세대와 약 10년의 연령차가 있다. 1, 2세대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함께 이루어온 세대라면, 3세대는 그것들을 소비하는 세대이다. 1세대는 소위 386세대로서 공동의 역사경험과 집단적인 정체성,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성미산마을에는 이들 중 일부가 여전히 일선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성미산마을의 짧지 않은 역사와 다양한 활동 영역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3세대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리고 성미산마을이 확장되고 활동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3세대는 1세대의 지도력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³¹⁾

요약하자면, 성미산마을은 육아·교육 공동체로 시작해서, 마포두레 생협의 설립으로 경제적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히기 시작하고 공동체 밖의 주민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성미산 지키기 투쟁을 통해서 내부적 역량이 결집되고 주민들과 결속하며, 외부로 널리 알려지면서 성미산마을로 많은 사람이 이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마을기업의 운영으로 내부적으로 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마을축제, 마포FM, 마을극장, 복지분야의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성미산마을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경계를 넓히고 있다. 어린이집, 방과후 그리고 대안학교를 아우르는 육아 및 교육 단체들은 여전히 마을 활동가를 충원하고 훈련시키는 '사관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

31) 유창복, 앞의 논문, 83-87쪽.

앞에서 살펴본 칠보산 공동체와 비교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현저한 공통점은 역시 육아·교육 단체들이 공동체의 시작을 열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성원 층원의 통로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또한 환경, 생명, 공동체성 등 추구하는 기본 가치와 관련 활동도 유사한 점이 있다. 생태적 활동 면에서는 지리적 환경이나 도토리교실이라는 존재로 인해 칠보산 공동체가 오히려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동호회 성격의 모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점이나 뒤풀이 등의 비공식적 모임이 발달한 것도 두 공동체가 유사한 점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단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류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져서 단체들을 아우르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칠보산 지역에서 2001년에 시작된 한가위 한마당과 2002년에 시작된 정월대보름 행사가 공동체를 주축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점도 성미산마을의 성미산 축제와 닮은 부분이다.

두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차이점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성미산마을에 비해 칠보산 공동체는 역사가 짧고 규모도 작으며 활동도 다양하지 못하다. 특히 공동체의 경제활동이 전무한 것이 가장 현저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기업 내지 공동체기업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존재이다. 필자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마을기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필요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4%에 불과했다. 마을기업의 창업과 운영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사람은 33%였고, 48%는 잘 모르겠다고 했으며, 참여할 의향이 없는 사람은 19%였다. 그러나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87%였으며, 그런 의향이 없는 응답자는 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마을기업을 원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기업의 창업과 운영에 참여할 사람도 상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을기업이 전혀 없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본 결과, 모든 응답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결국 일을 처음 시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공동체의 여러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C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다 자기 생업이 있고, 이제 애들 키워야 돼서 안정적인 수입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한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처음 몇 년은 모든 것을

바쳐야 되잖아요. [...] 내 생업까지 그만두고 마을을 위해서 헌신하는 활동가가 되겠다. 이런 일은 마을에 필요하니까 내가 꼭 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한살림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H씨는 사람들이 자기 단체 내에서 다 바쁘고, 각자 자기 것에 만족하고 즐기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잘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 했다.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지 않은 N씨는 모임 자리에서 마을기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우리도 생기기만 하면 잘 쓸 텐데라고 말은 하는데, 나서는 분이…… 얘기만 하고……”라고 했다. 즉, 소위 총대를 메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데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칠보산 공동체의 형성에 기초가 된 공동육아 어린이집, 방과후, 그리고 대안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했던 리더들의 성향과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성미산마을의 1세대에 해당하는 초기 리더들은 자유학교 설립 이후 공동체 활동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일부는 지역을 떠났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사람들도 직접적 활동을 하지는 않고, 일종의 자문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들은 교육 및 육아 이외의 분야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단체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공동체에 합류한 사람들은 온갖 역경을 딛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고, 단체의 운영과 여타 활동에 매달리느라 마을기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더라도 막상 창립에는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성미산마을의 성공에는 성미산 지키기 투쟁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년여에 걸친 기나긴 투쟁의 경험과 협동을 통해 승리한 경험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다고 한다.³²⁾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방과후, 그리고 생협을 제외한 거의 모든 활동과 사업이 성미산 지키기 투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결실이라고 한다. 그런데 칠보산 공동체에는 이런 계기가 전무하다. 즉, 절실한 필요에 의해 힘을 합치고 그 결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극적인 계기가 없다 보니, 자신이 헌신하지도 못하고 동료들의 전폭적인

32) 유창복, 앞의 책, 288쪽.

지원을 기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

4. 칠보산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전망

성미산마을과 비교하여 칠보산 공동체가 내부적 역량이나 외부로의 확산 노력 등에서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성미산마을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면에서 잘 형성된 도시의 지역공동체이다. 그래서 전국적 관심의 대상이고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성미산마을이 이와 같은 위상을 차지하는 데에는 성미산 지키기 투쟁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포두레생협의 결성과 더불어 성미산 지키기 투쟁의 성공은 마을의 폭발적 확장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런데 칠보산 공동체에는 이런 결정적 계기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교육단체들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가 결합하여 내부적 결속을 강화하면서 외부의 지역과 교류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교육단체 활동을 통하여 성원들은 강력한 내부 결속을 이루고 공동체 지향의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는 것은 공동체 형성에 매우 큰 장점이 된다.³³⁾ 그리고 아이가 단체를 졸업하여 조합을 탈퇴한 이후에도 공동체에 잔류하여 활동을 하는 사람의 수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다. 이와 같이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어린이집과 방과후 및 대안학교는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 투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심과 활동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내부적 결속력 강화와 집단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공동육아 문화가 외부와의 교류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자유학교 입학생의 다수가 지역 외부에서 온다는 점은 지역공동체 형성에 상당한 약점이 된다.³⁴⁾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자유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33)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단체를 통해 이웃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89%, 교육 및 육아활동을 통해서 이웃관계가 지속된다는 응답자가 74%였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형성의 기초가 되는 이웃관계의 시작과 유지에 교육단체 활동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D씨의 추정에 의하면 자유학교 입학생의 50% 정도가 지역 외부에서 온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수가 50%를 넘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부모들은 대안교육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지식조차 부족하여 1년 동안 민들레 독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을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동체에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학교 학부모들이 공동체의 가치관을 습득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발달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안중등학교 개교 준비는 칠보산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1년 사이좋은어린이집 개원, 2002년 사이좋은방과후 개원, 2005년 칠보산자유학교 개교 이후 칠보산 공동체의 1세대 리더들은 공동체 활동에서 서서히 물러나게 된다. 교육단체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후속 세대들은 비교적 어려움 없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가입하고 활동을 하게 되었다. 자유학교 터전의 매입 결정과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 많은 회의를 통해 이견들을 조율해야 했다. 이것이 후속세대가 경험한 공동체 내의 중요한 결정과 실행이었고 그 이후 중요한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안중등학교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지만, 구체적 준비 단계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어왔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안교육을 위해서 아이를 타지로 보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다시 대안중등학교 준비 논의를 하고 올해 준비 모임을 꾸려서 내년에 개교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 자유학교 학부모들의 역량이 대거 투입되었다.

칠보산 공동체에서 대안중등학교의 개교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오랫동안 칠보산자유학교의 숙원이었던 중등대안학교를 결국 만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원들이 뜻과 역량을 모아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경험을 통해 이후 공동체의 힘을 결집해서 새로운 활동을 전개할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둘째, 한동안 중등학교 준비를 위해 집중되었던 공동체 자원이 다른 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자유학교 또는 어린이집과 방과후를 졸업하고 중등대안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의 학부모는 긴 시간 동안 공동체에 머물게 되면서, 인간관계 긴밀화, 가치관 내면화, 지역에 대한 애착심 강화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공동체의 공고화와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에 칠보산마을신문, 칠보문화놀이터, 꿈꾸는 자전거 등 칠보산 공동체가 지역의 이웃들과 교류하고 공동체의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들

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활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를 거두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이런 종류의 시도들이 더 많이 생길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 기업 역시 아직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은 없지만 공동체 성원들의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이고 누군가 시작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 참여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때문에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안하면 칠보산 공동체가 지역 속으로 들어가서 공동체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외연을 넓혀갈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칠보산 공동체 확산의 성공 여부는 상당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대응에 달려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긍정적인 부분의 사례로 한가위 한마당 행사를 들 수 있다. 2001년에 당시에는 유일한 육아 단체였던 사이좋은어린이집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이래 늘어나는 공동체 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규모가 점점 커졌다. 2011년 행사에 대한 《수원일보》의 기사를 보면, “지난 8일(9월) 한가위를 맞아 권선구 호매실동 상촌초등학교 운동장에서 7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가)칠보산 마을 공동체 주최로 ‘서수원 한가위 강강술래 한마당’이 개최되었다”라고 나와 있다. 주최자인 (가)칠보산 마을공동체에는 사이좋은어린이집, 사이좋은방과 후, 칠보산자유학교, 한살림 햇살모임, 칠보산도토리교실, 사이좋은명예방, 동명, 배움터 마당, 칠보농약전수회, 칠보산마을신문이 포함되었다. 즉, 당시 공동체에 속한 모든 단체를 망라하고 있다. 공동체 성원 총수가 200-250명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에 500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함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에는 약 1,000명이 참가했다고 하니, 한가위 한마당은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낸 지역의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살림 햇살모임이나 꿈꾸는 자전거, 마을신문, 칠보문화놀이터 등을 통해서 공동체 성원들과 지역주민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공동체의 외연이 넓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우선, 지역주민과 함께하려는 여러 시도가 아직은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살림 햇살모임이나 꿈꾸는 자전거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의 숫자가

여전히 매우 적고, 마을신문도 단순한 소비 이상의 도움을 주는 주민들이 아주 적다. 칠보문화놀이터를 통해서 주민들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조직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한살림에서 주최하는 초록장터 장소와 관련된 일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2008년 가을에 엘지빌리지 3단지과 4단지 사이에 있는 느티나무 부근에서 처음 장터를 열었다. 3, 4단지가 도로와 인접해 있는데, 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쪽으로 들어오면 경비들이 저지를 하곤 했다. 그런데 이 장터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2011년에 공동체 성원 두 사람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가면서 아파트 단지 중심부의 분수대 부근으로 장터를 옮기게 되었다. 음식 판매나 일부 장사꾼들의 개입 등에 대해 입대위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두 사람이 입대위에서 나오면서 초록장터에 대한 입대위의 대체적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되어, 단지 내에서 장터가 열리는 것을 금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V. 맺음말

도시화가 진전되고 아파트가 지배적 거주유형이 되면서 친밀한 이웃관계와 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적 성격이 거의 사라져버린 현대 한국의 도시에서 공동체적 관계에 대한 욕구가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마을만들기로 통칭되는 공동체 형성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또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의 대표적 도시인 수원 의 칠보산 공동체를 사례로 지역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공동체가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하며 그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능해보려 했다. 칠보산 공동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성미산 마을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진단을 시도해보았다.

칠보산 공동체는 공동육아 협동조합 방식의 육아와 교육 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단체들이 가진 공동육아 운영방식의 특성상

구성원들 간에 친밀한 관계 형성이 용이하고, 특유의 문화와 환경, 평화, 공동체성 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어 그 단체의 테두리 내에서 공동체 형성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반면에 중산층 중심의 계층적 한계와 특유의 가치관과 문화 때문에 지역 내 일반주민과의 교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단체를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면서 공동체 확산을 위한 노력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칠보산 공동체를 성미산마을과 비교해보면, 칠보산 공동체도 육아 및 교육 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나 성미산마을에서 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지역주민과의 소통 확대에 크게 기여한 생협의 설립과 성미산 지키기 투쟁에 버금갈 결정적 계기가 칠보산 공동체에는 없었다. 또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활동이 전무하며, 리더십이 각 단체에 한정적이어서 공동체를 아우르면서 새로운 활동 영역의 개척을 추동하지 못하고 있다.

칠보산 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내부적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확산 노력이다. 교육·육아 단체들은 각 단체 내에서 성원들이 활발한 상호 작용을 통해서 긴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공동체적 가치관을 체득하고 있다. 핵심적 주도자와 적극적 참여자 그리고 소극적 참여자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 성원들 중 소극적 참여자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단체의 경계를 넘어 칠보산 공동체의 틀 안에서 더욱 단단하게 묶이기 위해서는 성원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도 공동체 성원들은 칠보산도토리교실, 한가위 한마당, 정월대보름 행사³⁵⁾,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과 사적인 만남 등을 통해 단체의 경계를 넘어 교류하고 있으나, 교류의 경로를 더욱 다양화하고 상호 작용의 밀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 기업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들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도록 유도할

35) 정월대보름 행사는 사이좋은어린이집과 사이좋은방과후가 자체 행사로 2001년에 시작해서 매년 해오다가 2009년경부터 칠보산 공동체에 속하는 단체가 모두 참가하는 행사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정월대보름 행사는 한가위 행사와는 달리 공동체 성원만 참가하는 소규모 행사로서, 2013년에는 도토리시민농장에서 40여 명이 참가해서 치러졌다.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설정이다. 교육·육아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칠보산 공동체와 그 활동에 대해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가위 한마당 행사는 매년 더 많은 주민의 관심을 끌면서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초록장터의 경우도 몇 년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단지 내의 중심부로 장소를 옮기도록 입대위의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어떤 활동의 목적과 방식을 잘 설정하면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가위 한마당은 일회성 행사라는 한계가 있으며, 초록장터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보산 공동체가 더욱 성장하고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큰 것 같다. 칠보산 공동체가 지역의 이웃들과 교류하고 공동체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성원들이 생겨나면서 칠보산마을신문, 칠보문화놀이터, 꿈꾸는 자전거 등이 최근에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유사한 시도들이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칠보농악전수회나 도토리교실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성원들과 교류하면서 공동체에 편입되기도 한다. 내년엔 개교할 예정인 대안중등학교는 칠보산 공동체의 성장과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교육단체가 안정화된 이후에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초창기 성원들이 겪었던 고난과 성공의 체험이 없는 대다수 기존의 성원들이 공동체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안중등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공동체 역량을 결집해서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경험은 차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안중등학교의 개교로 인해서 교육단체의 학부모들이 더 오래 공동체에 머물게 될 것이다. 대안초등학교를 거치든지 방과후를 거치든지 대안중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공동체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공동체 내에서 인간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공동체의 가치관을 더 깊이 내면화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공동체의 공고화와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칠보산 공동체는 마을만들기와는 무관하게 교육과 육아를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이다. 성원들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각 어린이집과

방과후,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도토리교실과 각종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왔다. 그러나 2010년 마을신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서 지역주민과 교류하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생기기 시작하여 꿈꾸는 자전거와 칠보문화놀이터 등이 활동을 시작했다. 이 활동들이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행정부문과의 교류도 시작되었다. 이근호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장에 따르면, 센터와 수원시 마을만들기 추진단에서는 칠보산 공동체에 주목하고 있으며, 마을르네상스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이다. 공동체 내에서는 외부의 지원을 받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의견도 자생력을 해치기 때문에 거부하지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느 쪽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칠보산 공동체의 확산을 통해서 더 큰 규모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공동체 성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칠보산 공동체가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확산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상당히 낙관적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칠보산 공동체의 사례를 통해서 마을만들기에서 중요한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 칠보산 공동체의 경우 대안적 육아와 교육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외부의 자극이 없어도 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둘째, 주민들 사이의 긴밀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많은 주민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활동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교류가 발생하고, 이것이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애초에 목표를 설정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군의 주도자가 필요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다른 주민들이 결합하여 인간관계의 연망이 형성되거나 혹은 연망을 이루고 있는 주민들이 이들과 결합하여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뻗어나가는 거미줄 모양의 연망이 형성된다. 이 연망 속에 포함된 주민들의 교류를 다변화하고 관계의 밀도를 높일 때 공동체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셋째, 마을만들기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인간관계의 연망이

형성될 때, 그 목표에 동의하지 않거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때 가능하면 많은 주민이 동의하고 참여하는 목표와 활동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 세력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중립적 방관자들을 포섭하여 인간관계의 연망을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할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망의 확대도 매우 힘들어진다. 따라서 다수 참여자 확대만큼이나 반대자 최소화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기초한 목표를 개발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그야말로 지원에 그쳐야 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 올리기에 급급하여 마을만들기에서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거나 주민들의 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주민들의 자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장기적 활동과 이를 통한 공동체적 관계 형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고창권, 『반송사람들』. 산지니, 2005.
- 곽현근, 「지역사회 주민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 참여의 영향요인과 사회 심리적 효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권 1호, 2007, 145-170쪽.
- 구자인, 「공동체운동의 조류와 시사점」. 『도시서민의 삶과 주민운동』, 도서출판 발언, 1996, 222-241쪽.
- 김경민, 「한국YMCA 지역커뮤니티 운동의 방향과 대안: 삼덕동 마을만들기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YMCA 간사자격 논문, 2008.
- 김기현, 「주민자치의 기반으로서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연구: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5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기호·김도년·김세용·김은희·박소현·박재길·안현찬·이영범·이윤석·장옥연·허윤주·황희연, 『우리, 마을만들기』. 나무도시, 2012.
- 김동수, 「현대공동체주의의 사상적 기초: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6권 3호, 1993, 3007-3021쪽.
- 김동수, 「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을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28권 1호, 1995, 275-296쪽.
- 김세용·최봉문·김현수·이재준·조영태·김은희·최석환, 「우리나라 마을만들기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 『도시정보』 371권, 2013, 3-20쪽.
- 김소희, 「작은도서관운동의 마을만들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은희·김경민, 『그들이 허문 것이 담장뿐이었을까』. 한울, 2010.
- 김정옥,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형성과정에서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성미산마을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류경희, 『공동육아, 이웃이 있는 가족 이야기』. 또하나의문화, 2004.
- 류경희·김순옥, 「공동육아협동조합 가족의 공동체성 형성 과정: 조합형 어린이집 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대한가정학회지』 39권 3호, 2001, 107-133쪽.
- _____,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의 참여를 통한 이웃과 가족 관계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39권 11호, 2001, 193-208쪽.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주)이락,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국토연구원, 2013.
- 신명호·서종균·이근행·이호·홍인옥, 「도시공동체운동의 현황과 전망」. 『도시연구』 6호, 2000, 51-81쪽.
- 안성수·하종근,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분석과 바람직한 운영방안: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19권 1호, 2006, 3-30쪽.
- 양영균,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과 작은 도서관, 용인시의 사례」. 『정신문화연구』 35권 2호, 2012, 35-67쪽.

- 유창복, 「도시 속 마을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 성미산 사람들의 ‘마을하기’」.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_____, 『우리 마을에서 논다』. 또하나의문화, 2010.
- 윤옥경, 「도시지역 마을만들기의 사례와 시사점: 대구 삼덕동을 사례로」. 『한국지역 지리학회지』, 14권 5호, 2008, 466-479쪽.
- 윤태근, 『성미산마을 사람들』. 문학동네, 2011.
- 이경란, 「공동육아 섬에서 마을주민으로」. 『함께 크는 삶의 시작 공동육아』, 또하나의문화, 2006, 168-187쪽.
- 이근행, 「생태적 도시공동체운동의 가능성과 전망」. 『도시연구』 7호, 2001, 96-116쪽.
- 이부미, 「공동육아 문화의 교육적 해석」. 『유아교육학논집』 4권 1호, 2000, 131-150쪽.
- 이부미 · 이기범 · 정병호, 『함께 크는 삶의 시작 공동육아』. 또하나의문화, 2006.
- 이영창 · 김근호, 「지역 어메니티 촉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운영사례 비교연구」. 『농촌계획』 19권 2호, 2013, 129-138쪽.
- 이은희, 「후기 근대 지역공동체의 성찰적 동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주영, 「참여자의 경험세계를 통해 본 지역시민운동: 마포구 ‘성미산 살리기 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지혜, 「도시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조건: 성미산, 삼덕동, 물만골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창호, 「공동육아협동조합 조합원의 참여과정과 집단정체성의 형성: 한 조합형 어린이집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혜경,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개선방안: 인천 가좌2동 어린이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임우연, 「공동육아협동조합의 부모참여 과정에 관한 연구: 신촌, 청주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장원섭 · 이수용 · 이수연 · 박수연 · 박명식, 「성인의 함께 배우기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공동육아에 참여한 부모들의 공동체적 학습과정을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13 No. 2, 2010, 1-29쪽.
- 정병호, 「한국사회의 공동체 교육현장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풀무학교와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민족과 문화』 9집, 2000, 407-432쪽.
- 정성훈, 「현대 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의」. 『철학사상』 41호, 2011, 347-377쪽.

- 최병두, 「공동체 이론의 전개과정과 도시 공동체운동」. 『도시연구』 6호, 2000, 32-50쪽.
- 최숙자, 「도시공동체와 지역주민운동에 관한 연구: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한국도시연구소 편, 『도시서민의 삶과 주민운동』. 도서출판 발언, 1996.
- 한상훈, 「성미산마을 연구: 도시에서의 새로운 대안적 삶에 대한 모색」.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국 문 요 약

본 논문은 목표는 수도권에 위치한 대도시인 수원의 칠보산 공동체를 사례로 하여 지역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확산되어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며 그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보려는 것이다.

칠보산 공동체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방과후, 그리고 대안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교육·육아 단체 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다양한 다른 활동들을 이끌어내어 삶의 여러 영역을 포괄하는 공동체로 형성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칠보산 공동체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육아 단체 성원들의 특징과 공동체 내에서 교육·육아 단체와 다른 단체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을 살펴본 다음, 공동육아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성장해온 성미산마을과의 비교를 통해서 칠보산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한다.

칠보산 공동체는 성미산마을과 달리 생협이나 성미산 지키기 투쟁과 같이 지역주민과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없었고, 공동체의 경제활동이 전무하며, 통합적인 리더십도 부재하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교류하면서 공동체의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가 2-3년 전부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공동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안중등학교의 개교가 공동체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칠보산 공동체가 자신들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지역주민들을 포괄하는 더 큰 공동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투고일 2013. 10. 11.

심사일 2013. 11. 10.

게재 확정일 2013. 11. 15.

주제어(keyword) 한국 도시(Korean urban area),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 칠보산 공동체(Chilbosan Community), 공동육아 협동조합(communal childcare cooperative), 대안초등학교(alternative elementary school), 성미산마을(Sungmisan Village)

